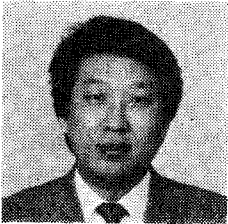


# 發明教室

##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 · 料캡 發明의 先頭走者

#### (주)월드크라운 金正煜 사장



〈金正煜 사장〉

'86西獨國際發明展 銅賞 수상에 이어 '87제네바國際發明展에서 金賞을 수상한 월드크라운 金正煜사장은 대학졸업후 6여년의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發明에 관심을 갖고 發明에 몰두했다.

金正煜은 發明의 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自動車 키를 분실했을 때의 난처함은 당해 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지요. 저 역시 몇차례 키를 잃어버리고 찢쩍 뱉는데 이것이 동기가 되어 이 發明을

하게 됐지요.』

그러나, 金正煜은 키의 착상 후 키를 부착할 곳이 마땅치 않아 무척 고민했다고 한다. 機械분야에는 門外漢이었기 때문이다. 機械專攻의 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칭찬을 機械商들의 조언을 모은후야 비로소 構造學的 見本품을 製作할 수 있었다.

『製品開發에 착수했을 때는 집한채값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시행착오를 거듭하다보다 開發費가 의외로 많이 소모되어 집 두채값을 투입해야 했지요.』

金正煜은 그나마 두번째의 집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5개월의 공백기간을 갖는 곤욕을 치러야했고, 이 공백기간으로 급기야 製品生産이 지연되는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이런 金正煜에게 確信을 준

것은 試製品이었다. 1천개를 만들어 가까운 친지나 이웃들에게 선을 보였다. 3개월 예정이었는데 20일만에 매진이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KOEX의 '86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가 있어 展示를 했는데 이때 이 製品의 人氣는 실로 대단했다. 그후, 이 製品때문에 일반소비자들은 물론 국내 오퍼상을 통한 해외 바이어들이 줄을 이었고, 商談 텔렉스가 쇄도하였다. 이때부터 밤에는 日本·美國·프랑스·대만등지의 商談으로 분망해져 밤잠을 설치는 경사가 계속되었다. 최근엔 이 製品에 비밀번호장치를 하고 또한 그 비밀장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더욱 실용화시키는 데도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작년 5월부터는 무역쪽으로 더욱 물량이 많아져 80만불의 수출액을 올리고 있다. <※>